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11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이멘
이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나마

얼음 깨기

도전!

교회행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도전'을 주제로 간단한 나눔을 함께해봅니다.

1. 올해 안에 꼭 이루어보고 싶은 작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2. 새로운 상황에, 나는 [신중한 편 vs 뛰어드는 편] 중 어느 쪽인가요?
상황이 있었다면 서로 이야기해봅니다.

11월

- | | |
|-----|--------------|
| 1일 | 문답식/굿윌센터야유회 |
| 2일 | 세례식 |
| 9일 | 성찬식/더가족세미나 |
| 16일 | 추수감사주일 |
| 19일 | 마하나임/트리니티중창단 |
| 29일 | 선교학교 수료식 |

12월

- | | |
|-----|----------------|
| 14일 | 목장 방학 / 어와나 종강 |
| 24일 | 성탄전야 |
| 25일 | 성탄 |
| 31일 | 송구영신예배 |

경배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선교

[김민구 선교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이가리다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소식

- 신임투표** 오는 11월 30일 주일 1부 예배 후, 담임 목사 시무 신임 투표를
온라인 투표로 진행합니다. 투표를 위해 핸드폰에 디모데 스마트
성도앱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지원** 사역 안내서를 살펴보시고, 1층 로비에 설치된 사역 지원 부스
신청함에 신청서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문장 큰 울림

기도란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가 바로 큰 일이다.

오스왈드 챔버스 (1874-1917)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에스라 10장 11절)

이제 우리는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결혼한 이방 아내와 아이들을 내보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이기를 기대합니다.

1_이방 민족과 결혼을 금지하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를 풀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하는 형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7:3~4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 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특별히,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하십니다.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정체성이 훼손되며, 나아가 기문 전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를 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시대의 위험한 문화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 개인주의, 무속 등)

2_말씀을 들을 때에

귀환 시기	중심 인물	초점
1차 귀환 (B.C. 538년)	스룹바벨	성전 재건 예배의 회복
2차 귀환 (B.C. 458년)	에스라	말씀 연구, 준행, 전수 회개 운동 및 결단 촉구
3차 귀환 (B.C. 445년)	느헤미야	성벽 재건 공동체성의 회복

에스라는 포로 귀환을 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성전이 완공된 시점이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완성되어 있었지만, 성전된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은 없었던 상황이었지요.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모으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점차 공동체의 상황이 말씀의 렌즈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에스라는 공동체가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옷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공동체는 이미 ‘죄’에 대해 둔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상황에 대해 서서히 타협한 결과였지요.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속에, 이들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이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아이들까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엉킨 실타래와 같이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는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영적 둔감함과 악에 대해 에스라는 슬퍼하고, 진노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금 새롭게 들려졌고 공동체 전체를 향한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나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은 어떤 마음 자세로 서 있다고 생각하나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회복이 필요함	간절한 마음으로

3_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 본문은 단순히 이방 민족과의 결혼에 대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본질, 곧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멘은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름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회개하고 다같이 결단함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이 모든 이름은 고통 중에 순종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기도합니다.

[나눔] 삶에서 ‘아멘’으로 대답해야 할 삶의 자리가 있다면?

[나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지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